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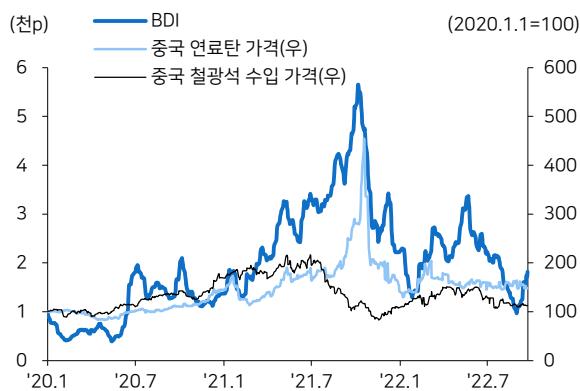
2022. 9. 26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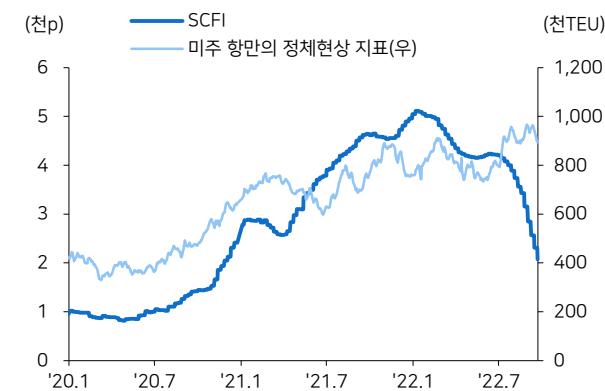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20.0p(-2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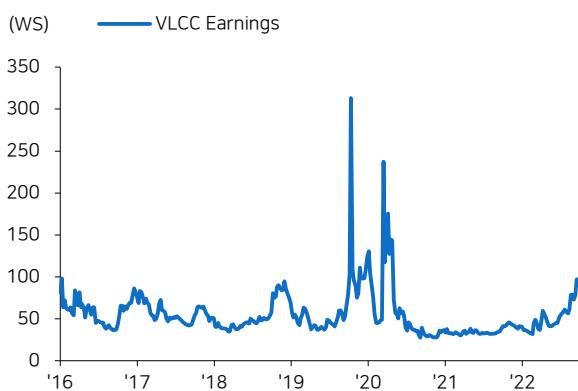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072.0p(-24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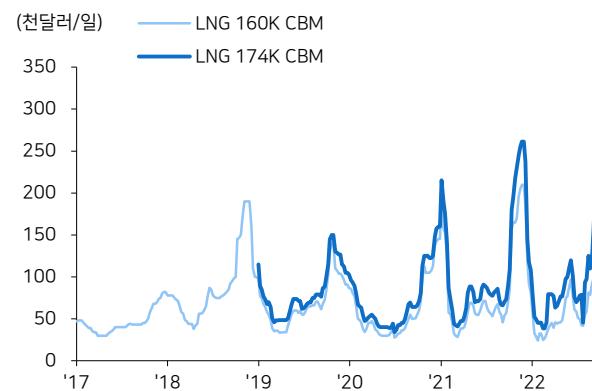
VLCC Spot Rate

97.1p(+0.2p WoW)



LNG Spot 운임

207.5p(+70.0p WoW)
297.5p(+78.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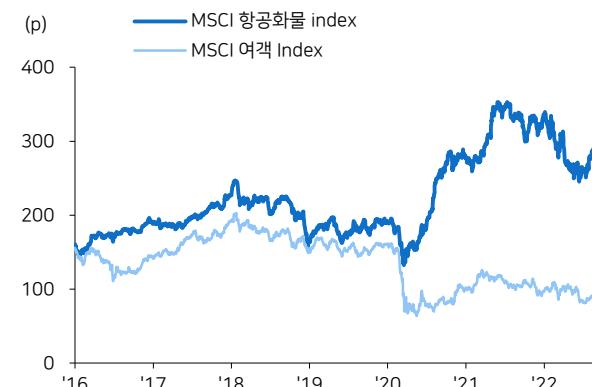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2p(-0.1p WoW)
200.9p(-10.4p WoW)



항공시장 지표

216.3p(-6.1p DoD)
81.7p(-2.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홍콩, 26일부터 입국자 격리 폐지…대만·일본도 문턱 낮춘다

홍콩이 9월 26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3일간의 격리를 없앤다고 보도됨. 식당과 술집 등 COVID-19 음성 증명 모바일 코드가 필 요한 곳은 출입할 수 없으나 학교나 회사는 갈 수 있음. 대만은 오는 29일부터 한국 등 무비자 국가에 대한 입국을 재개, 10월 13일 부터는 자가격리 없는 7일간의 자율관리로 방역을 완화한다고 알려짐. 일본은 10월 11일부로 외국인의 무비자 개인 여행을 허용, 입 국자 상한도 없앤다고 알려짐. (한겨례)

제주항공 일본노선 증편… 무비자에 예약률↑

제주항공이 본격적으로 일본노선을 확대한다고 보도됨. 10월 1일부터 인천~도쿄·오사카·후쿠오카 노선을 하루 2회로 증편할 예정임. 10월 30일부터는 2020년 3월 운항 중단한 김포~오사카, 인천~삿포로 노선을 주 7회 재운항할 예정임. 인천~도쿄 노선의 10월 예약률은 이달 5일 40%대에서 비자 면제 조치가 발표된 이달 23일 70%대로 상승했다고 알려짐. (조선Biz)

Capesize bulker market rises 45% as China's building sector shows signs of life

중국 건설업이 서서히 살아나며 Capesize 벌크선 운임이 2주 연속 상승했다고 보도됨. 그럼에도 철광석 수요는 과거 평균수준 대비 낮다고 언급됨. Capesize 5TC는 23일기준 전주대비 45.2% 상승하며 약 2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려짐.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8월 철강 생산량은 전년대비 4% 감소했는데, 중국은 0.8% 증가함. 2021년 6월 이후 첫 증가세로 언급됨. 해운 데이터 플랫폼 Shipfix는 반등이 보이긴 했지만 일일 운임은 과거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Crude tanker rates cool off, while Atlantic MRs ride a roller coaster

지난 한 주에는 원유운반선 단기운임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도됨. VLCC가 3,254달러/일 상승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으나 그 전주 14,625달러 상승대비 적은 상승폭이라고 언급됨. 그러나 선주들 사이에는 겨울철이 다가오며 운임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African influence waning for tankers as Nigerian production hits 32-year low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기니만 VLCC와 Suezmax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됨. Bimco는 2022년 원유 톤마일 5.9% 감소에 기니만이 VLCC 톤마일의 13.7%, Suezmax의 16.5%에 기여했다고 분석함. 수요 감소는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이 전년대비 13.5% 감소한 데에 기인함. 650,000BPD 규모 나이지리아 Dangote정제소가 가동되는 2023년중순에는 기니만 물동량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됨.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표한 8월 생산량은 972,000BPD로, 32년래 최저치임. (Tradewinds)

Poland strikes new long-term gas deal with Equinor

노르웨이 Equinor가 폴란드 PGNiG와 10년짜리 연간 24억CBM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신규 설치된 Baltic 파이프라인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이는 폴란드의 연간 가스 수요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